광양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국비 지원 최대 80억 원, 근로자 고용안정·기업 지원 본격화

광양시는 지역 고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1월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건의했으며, 2월 12일 고용노동부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역 산업 여건 변화 등으로 고용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고용 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제도다.

광양시는 지난해 11월 철강산업 침체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철강 분야 고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정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안했으며,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이번 지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2026년 2월 13일부터 2027년 2월 12일까지 1년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적용받게 되며,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용 회복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정으로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직업훈련 및 전직·재취업 지원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연계 ▲기업 경영 안정 및 인력 운용 지원 등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해당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돼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광양시는 고용노동부 '버팀이음사업'과 연계해 최대 80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관련 사업 발굴과 공모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기업과 유관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기업과 근로자들이 관련 지원 제도를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광양고용복지+센터), 광양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해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 국비 사업을 최대한 확보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고용안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통합돌봄 본격화 "의사가 집으로 찾아갑니다"

영광군, 영광군의사회와 함께 1차 의료기관 17개소 협업 추진

영광군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영광형 통합돌봄 모델을 기반으로 "방문의료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확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광군 의사회(회장 이경종)와 협력하여 관내 2026년 일차의료 방문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17개 의원과 연계해 추진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가 필요함에도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영광군은 올해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심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65세 미만의 지체·뇌병변 심한장애인까지 포함해 보다 폭넓은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월 1회 이상 방문 진찰 및 건강상태 점검 ▲복약관리 및 욕창관리 등 의료서비스 제공 ▲돌봄 상담 및 지역자원 연계 ▲지속적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지원 등이며,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 유지와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영광군은 이를 통해 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의료·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방문진료와 돌봄서비스는 건강 유지와 기능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화순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화순의 푸른 하늘 지켜주세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3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을 맞아, 농촌 지역의 주요 대기오염 원인으로 지목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 소각은 미세먼지(PM-2.5) 발생의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산불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이에 군은 고령 농가와 취약계층의 편의를 돕고 불법 소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파쇄지원단은 수거가 어려운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 가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파쇄하며, 파쇄된 부산물은 토양 양분 공급용 퇴비 등으로 재활용돼 자원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최은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청정 화순의 하늘을 지키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소각 근절에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진도군,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전년도 대비 2단계 상승… '최우수' 등급 달성

진도군은 지난 11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해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평가이며,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이다.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의 평가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이며, 평가범위는 정보공개 실적 전반이다.

평가는 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 5개 분야(▲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정보 ▲정보공개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와 12개 지표에 대해 정량과 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유형별 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최우수(20%), 우수(30%), 보통·미흡(50%)' 등급을 부여하며 60점 미만은 '미흡' 등급으로 분류한다.

진도군은 이번 평가에서 같은 유형의 평균 점수인 84.78보다 6.31이 높은 91.09점을 획득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이는 전년도 총점인 84.86점에서 6.23점을 더 받아 보통 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성과다.

진도군 관계자는 "군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군민의 관심 사항을 공개하는 사전 정보 공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속 처리 등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무안군, 5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무안군(군수 김산)이 오는 23일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생백신에 더해 유전자재조합백신(사백신)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50세 이상 군민의 접종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무안군에 거주한 50세 이상 군민이라면 지원가능하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종할 경우 1회에 한해 백신비의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생백신은 3만6천 원, 사백신은 26만4천 원에 접종할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유지된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생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사백신은 10만 원을 지원받아 본인 부담금 26만 원에 접종 가능하다. 75세 이상 장애인은 생백신을 2만 원에 접종할 수 있고, 사백신은 동일하게 1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 발병 위험이 높고, 신경통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이 발병 및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백신은 생백신에 비해 예방 효과와 지속 기간이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은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방문해 상담 후 접종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장흥군,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기간 운영

3월 3일까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 열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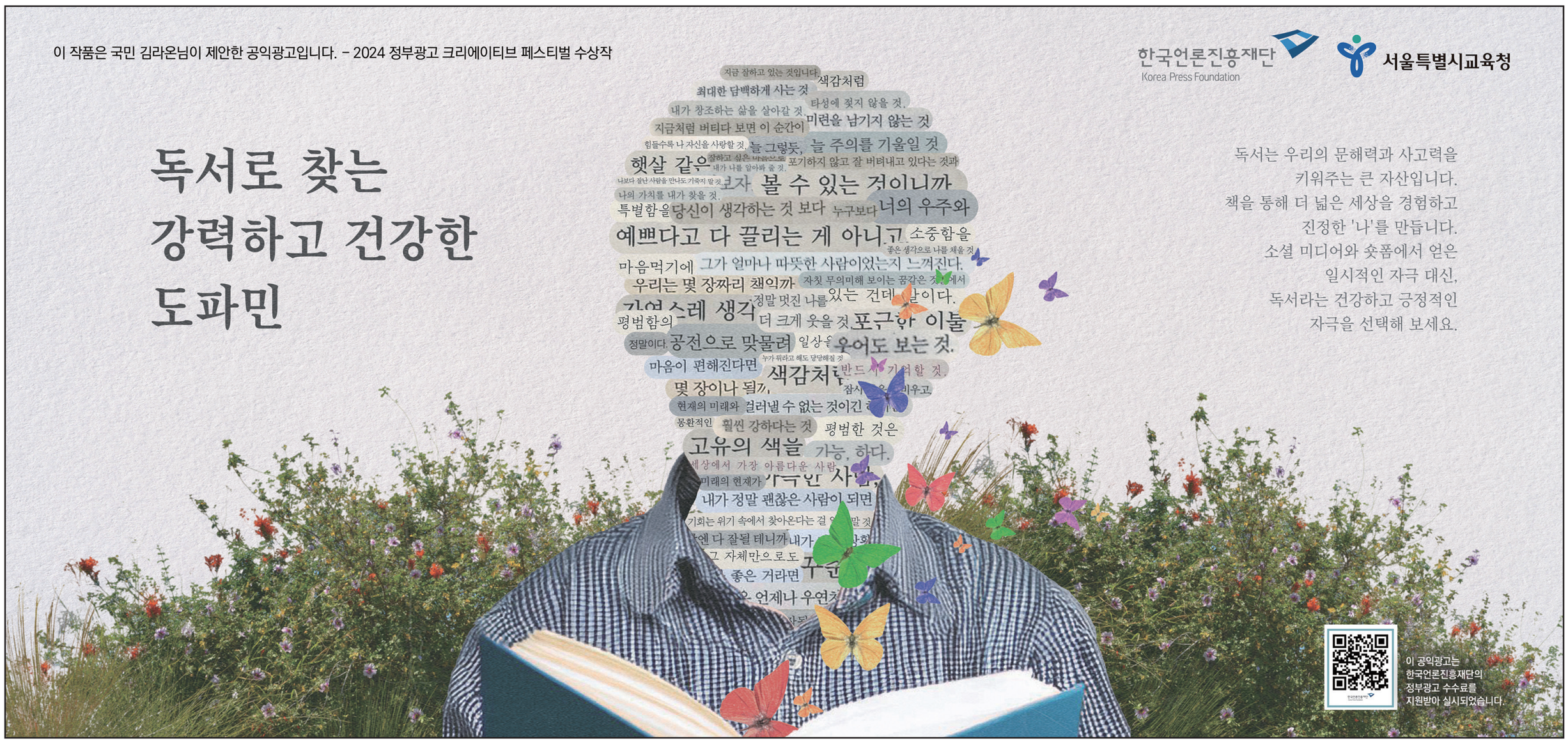
장흥군은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 앞서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2026년 1월 1일 기준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오는 3월 3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접속 후 '지방세정보 → 정보공개 →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다.

열람 결과 ▲전년도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건축물 용도·면적 등 사실관계 변동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전라남도 승인과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필요 시 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최종 처리 결과는 5월 중 개별 통보되며, 6월 1일 확정·고시된다.

군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은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